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유럽 가다

43년 전통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3개국 유럽 투어공연에 나선다.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으로 구성된 43명의 협력단원들은 18일부터 29일까지 3개국을 다니며 현지공연과 문화탐방을 할 예정이다.

첫 공연은 20일 오후 4시(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생 폴(Saint-Paul) 성당에서 열린다. 생 폴 성당은 프랑스와 보르도의 고전 건축의 걸작 중 하나로 17~18세기에 걸쳐 완성된 곳이다. 보르도소년소녀합창단 15주년 기념 콘서트에 초청받아 무대에 선다.

생 폴 성당 공연에서는 '개논', 'The Prayer', '두꺼비', '들강달강 접속곡', '빛고을아리랑' 등 정통합창곡, 팝송, 민요, 동요 등 11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르도 소년소녀합창단과는 '아리랑', 'Stabat Mater', 'Deum de Deo' 등 3곡을 연합 합창으로 공연한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보르도 생 앙드레 대성당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한다. 11세기 말에 건축된 보르도 생 앙드레 대성당은 프랑스왕 루이 7세의 결혼식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다. 보르도는 파리 남서쪽으로 562km 거리의 도시로 도심 속 347개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만큼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다양한 매력을 뽐낸다.

보르도합창단과의 공연은 서로 언어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등 3개국 투어 공연 합창의 언어 통한 교감·문화사절단 역할 특목

다르지만 합창이란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르도 공연을 마친 후에는 프랑스 파리 오페라광장(22일 오후4시), 벨기에

그랑 플라스(24일 오후4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한글학교(26일 오전11시)에서 현장공연과 문화탐방을 이어간다.

특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한글 학교 공연에서는 현지 한인 교포와 입양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갖는다. 1996년 개교한 로테르담 한글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있고, 14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윤영문 지휘자는 "그동안 쌓아온 끼와 재능을 마음껏 해외 무대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며 "합창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역할을 다하고 돌아 오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 '이음'에 대한 건축학적 재해석

갤러리 아트14, 나수빈 초대전 '관계: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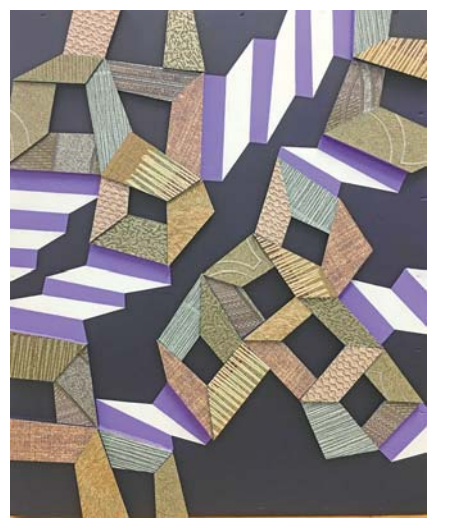
서양화가 나수빈 작가의 초대전 '관계:이음'이 담양 갤러리 아트14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나 작가는 '계단'이라는 조형적 요소를 평면 회화에 접목시킴으로써 시각적 환영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통해 '이음'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킨다.

실내디자인학으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가 5년 전 접한 '건축학적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작품 곳곳에 드러낸다.

계단과 계단이 만나는 부분에 실물 쫓 이미지를 배치하거나, '문' 등의 건축학적 기호 등을 그리면서, 안과 밖,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몽환적 세계로 관객을 인도한다. '계단'의 의미는 '연결과 소통'의 지향이다.

최근 작가는 세계수영대회에서 마스터즈 부문 선수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물결에 대한 색이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 작업에 활용해 보여준다.



'이음#3'

'변하지 않는' 시리즈에서는 자신의 정서적 근원을 인디안 핑크에서 찾아 작업했고, 'Various of Spaces'에서는 물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를 마피에르가 강한 푸른색과 흰색을 반복해 표현하기도 한다. /이연수 기자

## '하얀나비' 김정호음악회 열린다

19~20일 광주 수창초 특설무대서

광주가 낳은 천재 뮤지션 김정호의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제5회 하얀나비 김정호음악회가 19~20일 광주 수창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김정호음악회는 2015년 제1회 김정호 추모음악회로 시작해 5년째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악축제다.

특히 올해는 광주 북구가 주민참여형 골목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김정호 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뜨거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음악회는 '1973 순수청년 김정호, 그가 가졌던 노래의 꿈'이라는 주제로 김정호의 음악적 가치관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무대로 풀어간다.

하얀나비 뮤지컬하우스, 스페셜 콘서트 '김정호, 김광석을 만나다', 창작뮤지컬 '하얀나비', 불후의명곡, 부대행사 등 10여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날은 지역 선·후배 음악인들의 공연으로 꾸며질 하얀나비 뮤지컬하우스, 아무르합창단, 광주시민대합창 등이 진행되는 기념식과 KBC특집 방송녹화에 적우, 양현경, 유심초, 장

은아, 국소남, 강민, 윤태규, 진이랑 등이 출연한다.

둘째날은 광주와 대구 교류음악회 스페셜콘서트 '김정호, 김광석을 만나다', 가수 김정호의 음악인생을 스토리화 해 제작한 창작뮤지컬 '하얀나비'가 이어진다.

김정호의 불후의 명곡을 떠올리며 하남석, 신계행, 강은철, 김원중, 소리새, 대한가수협회 광주지회, 양리머스, 스왈루피 등이 출연하는 '불후의 명곡'도 진행된다.

행사기간동안 부대행사로도 김정호의 명곡을 통기타로 배워보는 음악학교와 가수 김정호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김수일 대한가수협회 광주지회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음악인 선·후배들의 뜻을 모아 준비한 아주 특별한 행사이며, 특히 광주만의 특색있는 음악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연수 기자

##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 '풍성'

내일부터 17일 동안 음악회·청년작가 기획전 등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가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 동안 열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양 시·도의 문화 예술 분야 상생을 위한 것으로, 올해 다섯 번째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18일 오후 4시 담양 해동 문화예술촌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청년작가 교류기획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광주·전남·경남이 함께하는 '영호남 명무명장전', '광주전남 예술인교류 음악회'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광주와 전남에 연고를 둔 청년작가들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청년작가 교류 기획전'은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사유와 고민이 드러나는 작품이 전시된다.

18일 오후 7시 담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영남의 무용과 호남의 소리를 융합한 전통공연 '영호남 명무명장전'이 무대에 오른다. 북청계, 남도소고춤, 진주검무, 가야금 병창 '흥부가-제비노정기', 통영 오광대 '문둥이춤', 판소리 '심청가-눈 뜨는 대목', 김진홍류 동래 한량춤, 우도 설장구-김오재류 김동언계 등 호남 대표 공연 4개와 영남 대표 공연 4개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영호남 명무명장전은 최고의 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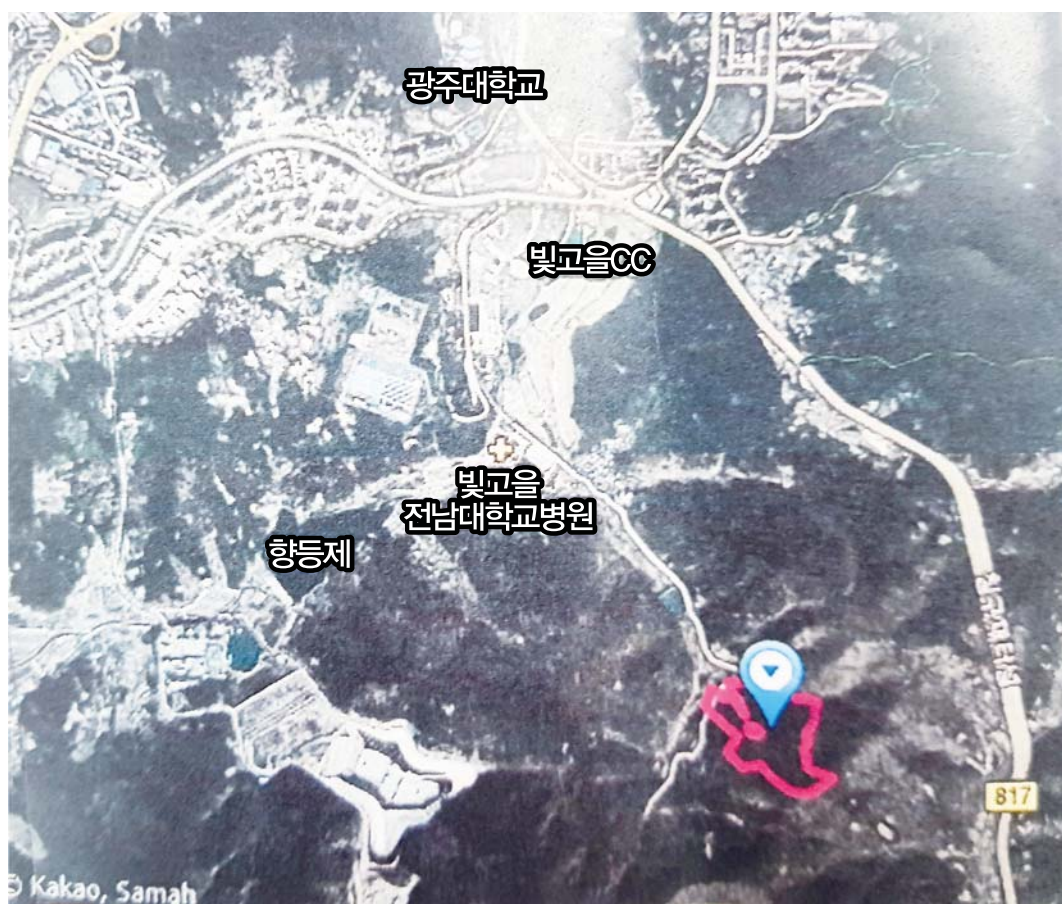
지난해 열린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 모습.

과 대표적인 정통성을 가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함께 출연하는 의미 깊은 공연으로, 지역과 장르가 다른 무형문화재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열리는 '광주전

남 예술인교류 음악회'는 퓨전국악, 무용, 버스킹, 마술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공간 등이 운영되며 담양 메타세콰이아랜드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이보람 기자



##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될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